

# “역경 가운데서의 부르심” (Calling in Suffering)

설교 Sermon  
설교 Sermon











“그런데 불이 난 빌딩들은 보이지 않네.”

“미국이 저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난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야.”

“이것은 정말 놀랍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15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평화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저 나라의 정부는, 정부가 먼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시위대도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저 당시 난 서울에 살면서 몇 번 시위를 구경하러 나갔었다. 정말 안전했고 사람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가족 나들이를 하고 있었다.”

“수만 명의 경찰들이 시위대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지 않았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소유물과 공공시설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행동했다.”

I. 이 청년은 방탕하게 살았어요.

(눅 15:11-13)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Lk 15:11-13)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share of property that is coming to me.' And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Not many days la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he had and took a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squandered his property in reckless living.



(눅 15:14-15)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위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Lk 15:14-15) 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a severe famine arose in that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약 4: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Jms 4:6) But he gives more grace. Therefore it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II. 이 청년은 궁핍해 졌어요.

공필


need

필요



(눅 15:16)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Lk 15:16) And he was longing to be fed with the pods that the pigs ate,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A close-up, shallow depth-of-field photograph of a person's hands writing in a notebook. The person is wearing a light-colored, ribbed sweater. They are holding a blue pen and writing on a white page. The notebook is open on a wooden desk. The background is blurred, showing more of the desk and the person's arm. A semi-transparent white circle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containing the Korean text '노트에 기록하기' (Recording in the notebook).

노트에  
기록하기

III. 이 청년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어요.

(눅 15:17)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Lk 15:17) "But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more than enough bread, but I perish here with hunger!'



IV. 이 청년은 죄를 고백했어요.

(눅 15:18-19)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Lk 15:18-19)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눅 15:29)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Lk 15:29) Look, these many years I have served you, and I never disobeyed your command, yet you never gave me a young goat, that I might celebrate with my friends.

(눅 15: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Lk 15:30) But when this son of yours came, who has devou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you killed the fattened calf for him!'



(눅 15:31-32)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Lk 15:31-32)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It was fitting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is found.'"

V. 이 청년은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눅 15: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Lk 15:19)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VI. 이 청년은 용서를 구했어요.

(눅 15:20)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Lk 15:20)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눅 15:21)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Lk 15:21)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요일 1:9)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Jn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Rm 8:28)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